

Liberal Education and Religious Education in High School: Focusing on the 'Religion in Life' Textbook in School Religious Education

Kyungyee Kim*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Abstract

[Objective]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place of religious education within liberal arts education in high schools and to identify strategies for its revitalization.

[Contents] First, in order to examine religious education as a component of liberal arts education in high schools, this study first explores the concept of liberal arts education,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liberal education in high schools, the expectations placed upon it, and the various issues that have been raised concerning liberal arts subjects.

Second, to examine on 'Religion in Life' as a form of liberal education, the study addresses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Life and Religion curriculum, the subject's nature and goals, key content areas and instructional emphases, the selection and organization of textbook content, and the roles of teachers and students in curriculum implementation.

[Conclusions] In the school curriculum, both liberal arts education and religious education remain at the margins. The three textbooks developed under the revised curriculum reflect the nature of the 'Religion in Life' course and are structured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religious literacy. This study proposes the need for continued exploration of strategies for introducing religious education not only in private religious schools but also in public schools in the future.

[Keywords] Religion in life, Religious education, the Religion in life textbook, Religious education in school, Liberal arts education

* **Corresponding author** Kyungyee Kim (Professor, Departmen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E-mail : clara90@catholic.ac.kr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s ©Korean Association for Religious Education

고등학교 교양교육과 종교교육: 학교 종교교육 '삶과 종교' 교과서를 중심으로

김경이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요 약

[연구 목적] 고등학교 교양교육 안에서 종교교육의 위치와 종교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탐색하고자 한다.

[연구 내용] 첫째, 고등학교 교양교육으로서 종교교육에 관해 고찰하기 위해 교양교육이란 무엇인가?, 고등학교 교양교육 변화과정, 고등학교 교양교육에 대한 기대, 교양 교과에 제기되어 온 문제들을 살펴본다. 둘째, 교양교육으로서 삶과 종교에 관해 고찰하기 위해 삶과 종교 교육과정 개발 과정, 교과 성격과 목표, 주요 내용과 교수 학습에서 강조점, 교과서 내용 선정과 구성, 교육과정 실행에서 교사와 학생의 역할에 대해 다룬다.

[결론] 학교 교육과정에서 교양교육과 종교교육은 주변부에 머무르고 있다.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3종의 교과서는 '삶과 종교' 교육과정의 성격을 반영하고 있으며 종교 문해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향후 중립학교 뿐 아니라 공립학교에서의 종교 교과 개설을 위해 필요한 방안에 대한 지속적 탐구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였다.

[주제어] 삶과 종교, 종교교육, 종교 교과서, 학교 종교교육, 고등학교 교양교육

I. 서론

국가 교육과정에서 종교 교과는 교양 교과에 포함된다. 그동안 종교 교과는 ‘종교’, ‘생활과 종교’, ‘종교학’ 등의 이름으로 운영되다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삶과 종교’라는 교과목 명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교과목 체계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구성되며 ‘보통 교과’는 다시 ‘공통 과목’, ‘선택 과목’(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으로 나뉜다. ‘삶과 종교’는 고등학교 교양 교과(군) 가운데 ‘진로 선택’에 포함되는 교과목이다. 진로 선택에는 ‘삶과 종교’ 외에 ‘인간과 철학’, ‘논리와 사고’, ‘인간과 심리’, ‘교육의 이해’, ‘보건’이 포함된다.¹⁾

교육과정은 개발 과정에서 개발 방향의 타당성과 가능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구하게 된다. 교과목의 체계와 과목의 명칭을 정함에 있어서 교과별 학문 분야의 연구자와 교육 현장의 전문적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게 된다. 김영은 외(2021)가 수행한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교과목 체계와 이수 경로 탐색』에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개발 과정을 담고 있다. 연구에 의하면 교과목 체계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교육과정 및 교과 교육 전문가, 현장 교사, 학부모 등의 의견을 구했다. 그런데 연구 내용을 보면 교양교육에 대한 논의는 부재하고, 논의 과정에 참여한 교양교육 연구자를 확인하기 어렵다. 2차례 진행된 델파이 조사에는 교육과정 전공, 국어, 영어, 수학, 지리, 일반사회, 역사, 도덕·윤리,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전공자가 참여하였는데 이들은 공통 과목에 해당하는 교과(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의 전공자들이다. 선택 과목으로 편성된 체육, 예술, 기술 가정/정보, 제2외국어, 한문 그리고 교양 교과의 전문가는 참여하지 않았으며 의견을 묻는 설문 항목의 선택지에도 교양 교과에 해당하는 과목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보고서에 의하면 “과목군의 분류와 성격 및 위상 문제에서 과목군 내 과목 성격과 비중의 동일성 문제”, “교양 영역의 무용론”(Kim et al., 2021: 212) 등의 의견도 제시되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교양 교과와 관련한 의견 조사는 없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교양교육은 삶을 성찰하고 책임있는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가치, 태도를 기르는 교육이다. ‘삶과 종교’를 비롯한 교양 교과에 해당하는 과목들은 교양교육의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선정한 교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 개발 과정을 보면 전체 교육과정 안에서 교양 교과는 주변부에 머물러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1) 공통 과목 성격 : 기초 소양 및 기본 학력 함양, 학문의 기본 이해 내용 과목(학생 수준에 따른 대체 이수 과목 포함) / 선택과목 ① 일반 선택 : 교과별 학문 내의 분화된 주요 학습 내용 이해 및 탐구를 위한 과목(과목 : 진로와 직업, 생태와 환경) ② 융합 선택 : 교과 내, 교과 간 주제 융합 과목, 실생활 체험 및 응용을 위한 교육(과목: 인간과 경제활동, 논술) ③ 진로 선택 : 교과별 심화학습(일반선택과목의 심화과정) 및 진로 관련 과목(참조: 김영은 외 (2021)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교과목 체계와 이수 경로 탐색』, 교육과정평가원. 309쪽)

그동안 종교 교과는 중립학교에서만 개설되고 있다. 그런데 교양 교과로서 종교교육이 갖는 의미, 종교 교과가 국가 교육과정에 편성되어있다는 점, 종교에 대한 무관심에 따른 종교 문해력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종교 교과는 확대될 필요성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교양 교과로서 종교 교과의 위치에 대해 살펴보고, 2022 개정 교육과정 안에서 종교 교과 운영의 확대 가능성에 대해 탐색하고자 한다. 개정 교육과정에서 ‘삶과 종교’로 과목명이 변경된 종교 교과는 운영에서 이전과는 다른 상황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고교학점제를 기반으로 한 제도하에서 운영하게 된다. 그리고 2015 교육과정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교과서가 1종이었으나,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3종의 교과서가 있다. 각급 학교에서 교과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승인받은 교과서가 있어야 하는데 2024년 8월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으로부터 3종류의 ‘삶과 종교’ 교과서가 인정도서 심사에 최종 합격하였다. 다양한 교과서가 확보됨에 따라 교과서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종교 교과 운영과 관련한 상황이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시기에 고등학교 교양 교과로서 ‘삶과 종교’ 교과가 중립학교 뿐 아니라 공립학교에서도 교육과정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고등학교 교양교육 안에서 종교교육의 위치와 종교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탐색하고자 한다.

II. 고등학교 교양교육으로서 종교교육

1. 교양교육이란 무엇인가?

교양교육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로 올라간다. 기원전 5세기가 되었을 때 폴리스마다 소피스트로 불린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고등교육에 해당하는 학문을 젊은이에게 가르쳤다. 그리고 그 과목들을(Song, 2022: 46) 자유 교과(liberal arts)라 한다. 자유 교과의 원형은 3학(문법, 수사학, 논리학)과 4과(대수학, 기하학, 천문학, 음악)이다. 3학은 사고와 표현의 기초 학문으로서 지성의 형성을 위한 입문 교육에 해당하고 4학은 수적 자연적 질서를 이해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자유’ 교과라고 일컫는 이유에 대해 노예가 아닌 자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자유 교과라 한다는 의견과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교육을 통한 인간 자유를 추구한다는 의미로 자유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즉 무지, 편견, 기성의 진리 체계와 같은 고정된 속박의 틀에서 벗어나 비판적으로 탐구하고 새로운 것을 생산해내는 활동을 통하여 품성의 도약과 성숙한 자아 형성을 추구하는 교육이라는 의미이다(Lim, Yoon, & Bang, 2020: 11). 이들 과목은 중세에 와서 신학적 세계관과 결합하여 변용을 겪었으며 중세 대학의 신학, 법학, 의학과 같은 전공 교과의 예비교과로서 자리잡았다(Son, 2011: 95).

손동현(2009)은 교양의 고전적 의미를 어원적 그리고 그리스 로마의 고전적 인문주의 전통에서부터 시작하여 역동적이고 총체적인 개념으로서 고전적인 교양의 개념을 정리하고 있다(Son, 2009: 6-7). 교양 개념에는 “정신적 문화적 그리고 현실 생활적 능력과 그의 개인적 사회적 능력의 양성이 포함돼 있다. 즉, 자립적이고 자기활동적인, 그리고 문제해결의 능력을 갖춘 생에 충실한 인간을 탄생시키는, 능동적이고 복합적이고 지속적인 과정이 교양교육이다(Son, 2009: 8).” 당초 ‘교양’에 대한 논의에서 시작했지만 교양에 교육을 포함하여 설명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배울 수 있는 능력은 교양 및 교육의 기초”이며, “교육이 인격의 발달에 가하는 외적 작용이라면 교양은 본질적으로 개인의 주체적 활동 및 동화의 과정 및 성과라 할 수 있다(Son, 2009: 8)”고 본다. 즉 ‘교양’이란 교육을 통해 얻어야 하는 교육의 결과이자 목표인 셈이다. 이 목표는 직업교육과 달리 경제적 목적에 직접 연계되어 있지 않으니 도구적 목표가 아니고 그 자체가 본질적 목표라 할 수 있겠다.

백승수(2019)는 교양교육을 역사적이며 동시에 생성적 개념으로 설명한다. 교양교육의 역사적 전개와 학문적 발전에 따라 다양한 교육 용어가 생성되었고 유사 개념이 난립했음을 지적한다. 그는 교양교육과 관련하여 사용되고 있는 개념을 3가지 범주로 구분하는 데 구분의 기준은 각 개념에서의 강조점이다(Paek, 2019: 147). 첫째, ‘자유’ 강조형 교양교육 개념이다. 이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자유 교육의 개념에 기반하여 교양교육을 정의하는 학술지향적 개념이다. 내재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자유 교과(liberal arts)를 자유로운 방법으로 탐구하며 자유인을 추구하는 교육이다. “교양교육은 자유 교육의 의미를 탐색하고 확장하고 재발견해 온 자유 교육 재해석의 역사이다.” 자유 교육 그 자체를 고유한 내재적 목적을 갖는 교육으로 본 것이다. 둘째, ‘인문’ 강조형 교양교육 개념이다. “인문교육이란 자유로운 사람의 교육이며 자유로운 사람이 되기 위한 교육이다.” 인문교육은 인문학 교육을 포함하는 교육으로서 인문학적 상상력과 자연과학적인 합리성과 사회과학적 세계관을 포함하는 교육이다. 셋째, ‘기초’ 강조형 교양교육 개념이다. 이는 대학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본적인 지적 능력을 함양하는 기초 학업 교육을 강조한다. 기초 강조형은 기초교육, 기본교육, 공통교육 등의 명칭과 같이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보다는 교양기초교육, 기초교양교육 등 복합태의 형태로 사용된다. 이와 같이 맥락에 따라 교양교육이 구분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교양교육은 자유 교육이고, 인문교육이고, 기초교육이다(Paek, 2019: 147). 이를 달리 보자면 ‘자유’는 교육의 목적, ‘기초’는 교육의 기능, 그리고 ‘인문’에 대한 강조는 주된 내용에 대한 강조라 할 수 있다.

한국교양기초교육원에서 제시한 대학 교양교육의 방향성 또한 통합적 관점을 반영한다. 즉 기존의 분과 전문교육, 지식 습득 및 소비형 교육에서 벗어나 총합적인 접근과 지식창출 능력 교육으로의 전환을 강조한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문해능력, 정보수용 능력, 총체적 조망 능력, 지식창출 능력, 소통과 공감 및 협동 능력, 합리적 사고와 감성적 정서를 통합하는 능력을 함양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교양교육이란 인간의 전인적 성장과 자율적 사고, 공동체적 감수성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육이며, 이는 자유 교육, 인문교육, 기초 교육으로서의 성격을 복합적으로 갖춘 교육이라 할 수 있다.

2. 고등학교 교양교육 변화 과정

한국의 교육과정은 시대가 추구하는 교육의 목표, 교육 현장의 필요, 사회 변화 추이 그리고 정권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변화가 잦다. 1차 시기 이전은 교수요목시기라 하고, 1차시기로 불리는 교육과정은 1954년 4월 20일 문교부령 제35호로 공시되었다. 이후 제7차 교육과정은 1997년 12월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로 공시되었다. 제7차 교육과정 이후, 국가 교육과정이 사회 변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수정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교육과정 개편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수시 개정 체제로 변경되었다. 그래서 제7차 이후부터 교육과정은 ‘2007 개정’, ‘2009 개정’, ‘2015 개정’,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분류된다. 1954년부터 70년 동안 11번의 개정이 이루어진 셈이다. 1950년대 안정적이지 못한 국가 상황에서 제정된 교육과정, 그 이후 한국 사회의 급격한 변화 그리고 2000년대 이후 교육 환경의 급격한 변화 때문에 교육과정 변화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변화의 간격을 보면 국가 교육과정이 장기 비전을 담아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교육과정의 변화가 잦다는 것은 교육 현장에서 교육과정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압박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서 ‘교양’ 교과군이 등장한 것은 제5차 교육과정(고시 시기 1988년 3월, 고등학교 시행시기 1990년 신입생부터)부터이다. 제3차까지 교육과정에서 ‘교양’은 교육의 목표 진술에 포함되었을 뿐²⁾ 별도의 교양 교과를 지정하지 않았고 일부 보통 교과의 목표에만 ‘교양’이라는 표현이 담겨있다.

그러다가 제4차 교육과정(문교부 고시 제442호, 1981년 12월 31일 고시)에서 ‘자유 선택’ 교과군에서 ‘교양’ 용어가 등장했다. “자유 선택은 학교와 지역 사회의 실정을 고려하여 학교장의 재량으로 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과목이나 논리학, 철학, 교육학, 심리학, 종교교육 및 교양 등에서 학생들의 교육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선정하여 지도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이때 학교장은 지도하고자 하는 것의 목표와 내용을 분명하게 정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지도하되, 2개 이상의 과목을 설정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도록 한다”고 하면서 자유 선택 교

2) 예를 들어 제3차 인문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국어과의 일반 목표 진술에는 “교양 있는 생활에 필요한 국어 사용의 기능과 성실한 태도를 길러서, 효과적이고 품위있는 언어 생활을 영위하게 한다.” 음악과 목표 “음악의 체험을 통하여 음악성과 창조성을 계발하고 정서를 풍부히 하여, 조화된 인격을 형성하게 하며, 중견 국민으로서의 교양을 높이도록 한다.” 그러나 ‘교양’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없다.

과를 개설하는 경우 복수의 교과를 개설하게 하는 운영 지침이 제시되었다. 이때부터 자유 선택의 경우, 복수 과목을 개설하도록 하고, 종교 교과를 적시하지는 않았다.

제5차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을 교과 활동과 특별 활동으로 편성하고, 교과 편성은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구분하였다. 보통 교과는 국민 윤리, 국어, 국사, 사회, 수학, 과학, 체육, 교련, 음악, 미술, 한문, 외국어, 실업·가정의 13개 교과와 “교양 선택”으로 편성되었다.³⁾ 교양 선택은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기준 단위 배당표’에는 없다. 구체적인 교과목 명칭은 제시되지 않았고 과목명이 제시된 곳은 ‘교육과정 운영 지침’ 부분이다. 즉 계획과 지도, 평가 부분의 안내에서 교양 선택 과정으로 “교육학, 논리학, 심리학, 철학, 생활 경제, 종교 중에서 학생의 필요, 학교와 지역 사회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 재량으로 선택하여 지도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다만, 종교를 부과할 때에는 학교장은 앞에서 제시한 과목을 포함, 복수 설정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도록 한다.” 고 하면서 종교를 부과할 때 복수 과목을 개설하도록 교과명을 명시했다. 그러나 이때도 교양 과목의 이름만 있었지 교육체계나 교육 내용 등의 구체적인 각론은 마련되지 않았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6차 교육과정(고시시기 1992년9월, 시행시기 1996년부터 고등학교 1997년부터)부터였다(Yeo, 2024: 2).

이후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교양 교과에 포함되는 과목은 확대 추세를 보였다. 제7차 교육과정부터는 진로와 직업 그리고 생태 환경이 포함되기 시작했다. 제4차 교육과정에서부터 포함되었던 논리학, 철학, 교육학, 심리학, 종교학은 명칭에 변화가 있지만 계속 포함되어 있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교육을 통해 추구하는 인간상은 ‘자기주도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이다. 이 가운데 교양 있는 사람은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류 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사람이다.⁴⁾ 전체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 및 핵심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학교급별 교육목표와 연계될 때 소기의 목적에 이를 수 있다. 이에 교육과정에서는 각각의 인간상과 핵심역량을 연결하고, 초, 중, 고등학교의 교육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고등학교의 경우 교양 있는 사람을 기르기 위해 교육 목표를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새로운 문화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로 설정하고 있다.⁵⁾ 따라서 고등학교급에서 이러한 목표를 얻을 수 있도록 전체 교육과정을 통해

3) 제5차 교육과정. 문교부 고시 제 88-7호(1988.3.1.) 별책 1. 고등학교 교육과정
<https://ncic.re.kr/dwn/ogf/inventory.cs#>

4) <https://ncic.re.kr/dwn/ogf/inventory.cs#> 교육과정 원문 및 해설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 [고등학교] 32쪽

5) <https://ncic.re.kr/dwn/ogf/inventory.cs#> 교육과정 원문 및 해설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 [고등학교] 38쪽

학생이 여러 영역에서의 문화적 소양을 균형 있게 함양하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공감적 이해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경험을 효과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특히 비판적 성찰을 통해 자신과 타인과 사회를 이해하고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도록 지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인류 문화를 심미적으로 향유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며 궁극적으로 행복하고 품격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치게 되어 있다. 선택 과목의 과목별 이수 기본 학점은 과목별로 다르다. 교양 교과(군)의 선택 과목은 3학점으로 편성 운영 범위는 2~4학점이며 1학점 내 증감이 가능하다.

3. 고등학교 교양교육에 대한 기대

그동안 발표된 교양교육 과정의 목표와 교수 학습 원리의 내용을 보면 교양 교과에 대해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 현실을 고려하여 공통 교과에 대해 요구하지 못했던 바를 교양교육에 기대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선 교육 목표와 관련하여 보자. 고등학교 교양교육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교양교육 혹은 고등교육에서의 교양교육의 목표와 근본적인 차이는 있어야 할 것은 아니지만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교양 교과의 위치를 고려할 때 보다 강조되어야 할 점은 있다.

한혜정, 박덕주(2013)는 고등학교 교양교육은 전문지식이 아닌 통합(융합) 지식중심, 보편적인 교양교육이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2009 교양 교과의 교육과정 분석을 위해 구성된 교양 교과 교육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들은 교양교육의 목표를 개별화 교육과 사회화 교육 개념에 비추어 설명한다. 인간적 인격의 형성과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자아의 통합이라는 개별화 교육 측면과 시민으로서의 자질, 새로운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이라는 사회화 교육 측면에서 대학 교양교육과 개념적으로 차별화되는 고등학교 교양교육의 의미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고등학교 교양 교과 목표를 다음과 같이 재구성하였다(Han, & Kwak, 2013: 40).

첫째, 자아에 대한 이해이다. 이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삶과 교과 공부의 의미를 거시적으로, 그리고 실존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하는 성찰의 기회를 줌으로써 세계와 나의 통합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사회에 대한 이해이다. 이는 변화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학생들이 그 사회가 요구하는 폭넓은 시야와 안목을 갖춘 책임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기존의 전통적인 교과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하는 새로운 사회 문제와 시대 문제에 잘 대처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다”라는 점을 덧붙인다. 이를 위해 교육 내용을 구성함에 있어서 양적, 질적 적정성을 고려해야 하는데 양적 적정성이란 이수 단위에 대비하여 학습 양이 적정해야 함을 의미한다. 질적 적정성이란 교육 내용 측면에서는 학생의 실제 삶이나 생활과 관련이 있어 학생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주제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과 연계되는 과목에서 다루는 내용과 가능한 중

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교수 학습 방법적 측면에서는 체험과 활동 중심으로 학생들 모두가 자기 주도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져야 하고, 비판적 판단능력을 길러 줄 수 있는 수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후 한혜정 외(2015)의 연구에서도 교양 교과 개정의 개정을 위한 시사점으로 교육과정의 양과 수준의 적정화를 제시하였고 전체 교양 교과 개정의 방향으로 교양 교과 교육은 지식 교육이 아니라 인간 교육이고, 학문의 논리적 체계보다는 실용적 지식을 가르쳐야 하고, 학생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주제와 쟁점 중심의 수업이 되어야 하며, 해당 학문 분야의 특정 이론의 편파성을 지양하고 다양한 이론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지향점들은 이후의 고등학교 교양 교과 목표 설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양 교과 개정의 전체 목표를 제시하고 있지 않고 개별 교과 목표를 제시할 뿐이지만 교양교육 과정 시안 개발의 기본 방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학생의 삶과 관련성,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기초 소양과 역량 함양, 학습자 주도성이다. 특별히 삶과 관련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학문의 논리적 체계보다 생활과 연계된 실용적 지식, 과정·기능, 가치·태도 등 학습의 모든 영역에서의 조화를 통해 배움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학생 중심 교육과정 개발을 강조하고 있다(Jeong, et al., 2022b: 44). 이러한 점은 교양 교과에서만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교과 영역에서 지향해야 할 교육과정 개발의 방향이다.

한편 교양 교과 교육에 대한 기대는 교수 학습 과정에서도 적용된다. 그것은 적어도 교양 교과에서는 전형적인 교과 중심 교육과정의 면모들을 탈피하기를 바라는 기대이자 요구이다. 교양 교과를 통해 ‘자아 통합적 경험’, ‘적절한 정보를 찾아내고 평가할 수 있는 사고 능력과 판단 능력 배양의 기회’, ‘지식 덩어리의 습득이 아니라 학습자의 경험과 삶 속에서 재구성되게 하는 지식’, ‘교육 자료에 대해 학습자의 상상력과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탐구심, 신비로움, 경이로움, 경외심 등을 촉발하는 방식의 접근’ 등을 강조한다. 그리하여 교양교육의 결과가 실천적 지혜의 습득이 되기를 강조한다.

교양 과목 교사가 여전히 지식습득 혹은 지식전달 중심의 교수 학습의 원리에 기댄 경우 고등학교 교양 교과 교육의 취지는 무색해진다. 교양은 우리가 소유한 ‘지식의 덩어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지식과 관계를 맺는 ‘개인적 관계의 질과 결’, 즉 우리가 세계에 대한 지식을 자신과 어떻게 연결시키는지 하는 ‘주관적, 개별적, 정서적 관계의 질과 결’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교양은 세계에 대한 우리 자신의 일종의 개별적 감수성이나 문화적 스타일을 가리킨다. 이것은 지식교육이 아니라 오히려 감수성 교육에 가까운 것이다. 그러므로 고등학교 교양 교과 교수 학습 원리는 지식전수의 교육 패러다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취해야 한다(Han, & Kwak, 2013: 35-36).

4. 고등학교 교양 교과에 제기되어 온 문제들

고등학교 교양 교과와 관련하여 제기할 수 있는 우선적인 문제는 교양교육의 정체성 문제이다. 진로를 탐색하는 교과인지 교양 교과 고유의 목표에 따라 운영할 것인지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고등학교 교양교육의 목표가 독립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아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의 위상은 낮고, 입시 위주 교육과정 운영으로 인해 교양 교과는 입시 관련 공통 교과의 주변 교과로 밀려나 있다”(Son, 2022: 79).

교육과정이 변화를 거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양 교과가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첫째, 우리 사회에서 교양에 해당하는 교과들을 ‘비주류’ 교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교육과정 상에서 보통교과로 구분되는 교양 교과들은 일상적 용어로 사용하는 “주요교과”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주요교과”란 무엇인가? 이는 교육과정에서 사용되는 공식적 용어가 아니지만 우리 사회는 입시에 포함되는 교과를 “주요교과”라고 한다. 각 교과들은 고유한 지식의 체계와 교과를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학습 목표가 있다. 공식적인 교육과정에 세상의 모든 지식 체계를 담을 수는 없으므로 어떤 측면에서든 의미있는 지식만이 교과의 형태로 교육과정에 포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교과”와 “비주류 교과”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교육을 바라보는 특징적 측면이다. 결국 입시와 관련되는 제반 사항이 한국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교육과정에서 교양 교과에 대한 논의가 모호하다. 고등학교의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교양 교과의 학습 목표는 개별 교과 단위에서 제시되고 있을 뿐, 교양 교과라는 차원에서 논의가 없다. 그런데 교육목표의 ‘추구하는 인간상’에는 ‘교양있는 사람’을 언급하고 있으며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류 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사람을 의미한다.”⁶⁾라고 되어 있다. “교양있는 사람”을 전체 교육과정을 통해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보통 교과’⁷⁾에 ‘교양 교과’를 포함하면서 그 안에 ‘인간과 철학’에서부터 ‘진로와 직업’ 교과에 이르기까지 9개 과목을 포함하고 있다. “교양있는 사람”을 전체 교육과정의 목표로 두고 있는 교육과정에서 ‘교양 교과’의 역할을 과연 무엇으로 보고 있는가? 분명하게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 인간상에서 사용하는 “교양”과 “교양과목”에서 사용하는 교양의 의미가 동일한가? 다른가? 교양인을 목표로 제시하고, 교과의 분류에 교양 교과를 두고 있다면 교양의 의미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현행 교양과정은 교양을 기를 수 없는 구조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다. 이 논리적 모순은 애당초 교양교육 과정을 만들 때 과목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6)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 [고등학교] 32쪽

7) 전체 교육과정은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구분됨

문제 제기가 있다(Yeo, 2024:1). 그러면서 과목 중심의 교양 과정이 과연 고등학생의 교양을 함양하는 데 얼마만큼 도움일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Yeo, 2024: 1).

셋째, 교양교육에 대한 연구가 주로 고등교육 기관에서 실행과 관련한 것이 대부분이고 중·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양 교과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작다. 2013년 한국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표한 『미래사회 대비 국가 수준 교육과정 방향 탐색-교양』 연구⁸⁾에서도 “교양 교과는 다른 교과와 달리 교과서 개발, 교수 학습 방법 연구, 평가 방법, 교사 교육 등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다. 교양 교과 교육과정의 실효성있는 적용을 위한 후속 연구 및 지원이 지속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RISS에서 ‘한국교양교육학회’의 『교양교육연구』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에서 ‘대학 교양교육’을 키워드로 넣고 검색(2025. 4. 20. 기준) 하면 824건이 검색된다. 반면 동일한 학술지에 ‘고등학교 교양교육’은 45건이 검색될 뿐이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교양교육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다는 것은 다른 관련 통계자료에서도 확인된다. 2012년까지는 교육통계 조사 결과에서 2012년 일반 고등학교 보통교과 선택 교과목 개설 학교 수 현황(교양과목군 및 기타)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이후는 제시되고 있지 않다. 이는 교양 교과가 어느 정도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과 같이 2012년 기준, 전체 재학생 926,966명 가운데 57,774명이 교양 교과를 수강했는데 이는 전체 학생의 6.2% 수준이고 그나마 사립학교에서 주로 개설하였다는 점에 주목해야 하겠다. 그리고 또 한가지 주목할 것은 ‘생활과 종교’ 교과가 42개 학교에서 개설했는데 이는 ‘진로와 직업’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학교에서 개설된 교과이다. 그리고 개설 학교는 모두 사립고등학교이다. 종교 교과를 단독으로 개설할 수 없으니 다른 교양 교과를 함께 개설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결국 종교 교과는 고등학교 교양 과목 개설에 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할 수 있겠다. 2013년부터는 보통교과 선택 교과목 개설 학교 수에 대한 자료가 제공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후에는 교양 교과 운영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교양 교과를 담당하는 교원의 수를 찾아 보았다. 2024년 교양 교과를 담당하는 교원의 수는 2,793명으로서 보통 교과 교원 전체의 3.98%에 해당한다. 교원의 규모만 보더라도 현재 고등학교 교양 교과 개설 규모가 매우 미미함을 알 수 있다(<표 2> 참조).

8) 이 연구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된 고등학교 교육목표와 연계하여 고등학교 교양 교과의 목표, 내용, 구성의 원리, 교수학습의 원리를 명시하면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고등학교 교양 교과 교육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고등학교 교양교육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시도한 연구로서 널리 인용되고 있는 보고서이다.

<표 1> 2012 일반 고등학교 보통 교과 교원수

<Table 1> 2012 Establishment of Elective Courses in General Subjects

	생활과 철학	생활과 논리	생활과 심리	생활과 교육	생활 경제	생활과 종교	환경	진로와 직업	안전과 건강	보건	기타	합계	고등학교 전체 학생 수
학교 (학급)	23 (169)	16 (114)	3 (17)	11 (64)	23 (64)	42 (368)	36 (221)	82 (447)	8 (50)	7 (44)	5 (52)		
학생수	5,915	4,265	634	2,270	3,814	12,822	7,735	15,559	1,660	1,458	1,642	57,774	926,966
국립	0	0	0	0	0	0	0	0	0	0	0		6,375
공립	4	7	1	3	5	0	19	41	2	2	2	86 개교	514,862
사립	19	9	2	8	17	42	17	39	6	4	3	166 개교	405,729

2학년 학생수

https://kess.kedi.re.kr/publ/publFile/pdfjs?survSeq=2012&menuSeq=3894&publSeq=2&menuCd=34764&itemCode=02&menuId=1_6_28&language=en

<표 2> 2024 담당 교과목별 교원 수

<Table 2> 2024 Teachers by Teaching Subjects

보통교과 교원 전체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 가정	체육	음악	미술	영어	외국어	한문	교양
70,249	7,988	2,466	10,773	12,226	10,290	2,238	3,805	1,753	2,057	10,634	2,396	830	2,793

외국어 :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현직 교장, 교감 제외 / 교양 과목의 경우 타교과 자격증 소지자도 담당할 수 있다.

https://kess.kedi.re.kr/publ/publFile/pdfjs?survSeq=2024&menuSeq=3894&publSeq=2&menuCd=105479&itemCode=02&menuId=2_6_23&language=en 에서 보통 교과 교원만 발췌하여 구성

III. 교양교육으로서 삶과 종교

1. '삶과 종교'

1) 교육과정 개발 과정

교육과정에서 '삶과 종교'와 같은 종교 교과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만 편제되어 있다. 중학

교에서 종교 교과를 교육과정에 편성하려면 학교가 소속 교육청의 고시 외 신설 과목으로 신청하여 교육감 승인을 받는 경우 운영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삶과 종교’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교육과정 개발 과정과 교과의 성격과 목표에 대해 살펴본다. 교육과정 개발 과정을 다루는 까닭은 교과의 성격이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함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 개발은 교육부가 교육과정 개정 추진 계획(2021년 4월 20일)과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시안)’(2021년 11월 24일)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수행되었다. 시안에는 고등학교 교과목 구성(안)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향후 논의를 통해 과목명 등 조정 가능”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지만 최종 교육과정은 시안의 내용과 동일하다.⁹⁾ 그리고 선택 과목인 교양은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으로 구분되는 데 종교 교과인 ‘삶과 종교’는 진로 선택에 포함되었으며 이 또한 시안과 최종 교과목명이 동일하다.

2015 교육과정에서 종교 교과의 명칭은 ‘종교학’이었는데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삶과 종교’로 과목명이 변경되었다. 교양 영역 타 교과의 변경된 명칭을 볼 때, 그리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개발 방향인 ‘학생의 삶과 연계한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한 교과 교육과정’이라는 맥락에서 삶이란 용어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과정 개정 방향을 기반으로 「교육과정평가원」은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를 착수하였는데, ‘삶과 종교’가 포함된 고등학교 교양 교과 교육과정은 2단계의 과정을 거쳐 시안이 개발되었다. 1단계 연구 보고서는 2022년 5월 발간한 『2022 개정 교양교과, 진로와 직업과, 보건과 교육과정 시안』이다(Jeong et al., 2022a). 보고서에는 연구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1단계 보고서에는 시안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연구진의 작업과 “각론조정팀 주관의 합동 워크숍(4회), 현장 전문가 의견 수렴(1회), 교양·진로와 직업·보건 9개 교과목별 검토·자문진 자문(3회), 토론회(1회), 교육과정심의회 심의(1회), 교양·진로와 직업·보건의 정기·비정기 과목팀장 및 전체 협의회 등을 거쳤다.”라고 밝히고 있다(Jeong et al., 2022a).

이러한 과정을 거친 ‘삶과 종교’의 1차 시안에 의하면 ‘삶과 종교’ 교과를 “학생들이 종교와 그 영향력을 성찰할 수 있는 안목과 태도를 기르는 교양 교과로 보고 이러한 성찰은 종교를 통해 인간의 삶을 되돌아보는 다층적인 사유와 경험에서 비롯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라고 제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회 및 교육과정심의회에서 몇가지 수정 의견이 제시되었다. ‘2015 교육과정과 차이점을 찾기 어렵다’, ‘종교 교과가 고등학교급에서만 개설되므로 학습 수준 조정의 필요성’¹⁰⁾, ‘현실적으로 종교 교과가 개설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내용과 수준 조정’

9)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 발표. [2021. 11. 24.] 47쪽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89671&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10) 내용 수준 조정에 대한 의견은 타 교양 교과목에 대해서도 제기된 의견이기도 했다. “본 시안 개발 연구에서는 학생의 삶과 생활과 관련되고 학생의 주도성이 발휘될 수 있는 내용(성격, 목표, 내용 체계, 성취기준 등)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개선을 중점으로 다루었다. 그렇지만 합동

등과 같이 교육과정에 반영될 의견들이 제기되었다(Jeong et al., 2022a: 203-205). 교육과정 심의회 의견 가운데 일부 의견은 반영되었지만 반영되지 않은 것도 있었다. 미반영 의견으로 1단계 시안 개발 연구진은 내용 수준 조정은 교과서에서 구현할 수 있다는 점, 종교교육과정은 종립학교에 국한되지 않고 학교 일반에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Jeong et al., 2022a: 133). 이후 2단계 시안 개발 연구에서는 교양 교과 전반에 대해 제안하고 있는 1단계 연구 결과의 제언 3에 초점을 두었다. 그래서 2단계 연구에서는 “학생의 삶과 생활에 연계되고 학생의 주도성이 발휘될 수 있는 교과 교육과정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교과의 성격과 목표, 내용 체계, 성취 기준과 교수학습 평가 구성”(Jeong et al., 2022a: 133)에 초점을 두었다.

2) ‘삶과 종교’의 성격과 목표

‘삶과 종교’ 교과는 인간 삶에 미친 종교의 영향에 초점을 두어 인간과 종교 문화에 대한 이해, 종교로부터 익힐 수 있는 삶의 지혜, 종교가 갖는 공적 역할과 책임에 대해 배우는 과목이다. 역사적으로 종교에서 비롯한 폭력과 갈등 그리고 모순이 있었지만 종교는 사상적, 윤리규범, 사회 문화와 제도 그리고 일상 생활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쳐왔다. 그리고 그러한 측면은 오늘날의 삶에도 남아 있다. 사회 전반에 종교에 무관심하고, 특히 청소년 시기는 종교에 대한 관심이 어느 세대보다 낮다. 그런 까닭에 청소년들이 종교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를 갖기는 어려운 일이다. ‘종교의 자리에서 만들어졌다’는 지적이 있지만 교과의 목표는 종교인 양성이 아니라 지혜로운 시민을 기르는 데 있다. 진로 선택 영역에 삶과 종교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교과 체계를 구성하는 연구진들이 이 교과의 목표를 종교인 양성으로 하고, 진로 선택 영역에 이 교과를 포함시키지는 않았을 것이다.

즉 ‘삶과 종교’ 교과를 통해 기르고자 하는 인간상은 지혜로운 시민이며 이를 위한 교과의 목표는 첫째, 인간의 삶에서 종교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여 개인의 삶과 사회의 문제를 종교적으로 성찰한다. 둘째, 다양한 종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종교 간의 차이를 알고, 상호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며, 일상의 삶과 사회 변화에 도움이 되는 종교적 통찰과 지혜를 발견하고 익힌다. 셋째, 융합적 탐구를 통해 생활과 문화유산 안에 남겨진 종교적 특성과 종교적 아름다움을 발견·분석하고, 미래를 위한 창의력과 상상력을 기른다. 넷째, 종교로부터 배운 지혜를 개인의 삶과 사회 변화를 위한 실천에 적용하고, 공동선을 위하여 포용성을 갖춘 시민 의식을 기른다.

워크숍을 전후로 하여 각론조정팀 및 총론팀의 검토에서 볼 수 있듯이 여전히 내용이 교과 학문·이론적이고 대학교 개론 수준으로 교양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도 그렇지만 학생들에게 너무 어려운 내용과 수준으로 되어 있다는 의견이 개진된다”(Jeong et al., 2022a: 133).

3) 주요 내용과 교수 학습에서 강조점

‘삶과 종교’ 내용 구성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방향, 교과목의 목표, 학습자들이 흥미를 갖고 접할 수 있는 내용, 실제 수업 이수 단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내용 구성은 교과서 내용을 구성할 때 기본 틀로 작용하게 된다.

계획된 교육과정은 교실 현장에서 그대로 실행되지 않는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삶과 종교’ 교육과정은 계획된 교육과정일 뿐이다. 교육 목표는 교과 수업의 과정과 교육 환경의 맥락 그리고 교수자와 학습자의 상호작용 등 여러 변수들의 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교육 과정에는 계획된 교육과정과 실행된 교육과정이 있다. 실제 수업에서 계획된 교육과정과 의도적으로 다르게 할 수도 있고,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학생과 상호작용 과정에서 계획과 다르게 실행될 수도 있다. 그러나 실행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교과 목표에 부합하게 수업이 운영되도록 적절한 학습 경험을 준비하고 제공해야 한다.

‘삶과 종교’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수 학습의 방향은 종교에 관한 지식을 단순히 습득하는 차원이 아니라 종교를 알고, 종교로부터 배운 지혜를 삶에서 실천하고, 종교적 경험과 삶을 존중하고, 종교적 가치와 유사 종교의 비종교적 측면을 구분할 수 있는 학습 경험 구성을 제안하고 있다. 학습 목표는 학습 내용뿐 아니라 교수·학습의 과정과 방법을 통해서도 함양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해 수업의 분위기에서 신뢰와 포용, 상호 존중 등의 종교적 가치가 구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종교 교과 운영에서는 학습자의 교과 선택권이 강조되고 있다. 삶과 종교 교과를 편성하는 경우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허용되는 중립학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복수 과목을 편성해야 한다. 이는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기회의 제공”이라는 맥락에서 학습자들이 교육 활동 전반을 통해 고정 관념, 편견을 갖지 않도록 지도하고, 학습자 개인적 사회·문화적 배경에 의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소외되지 않고 모든 학생이 학교에서 학습 경험을 충분히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점, 특수교육과 다문화 가정 학생에 대한 고려 사항과 함께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다. 특히 건학 이념 또는 설립 취지가 분명한 종교계 사립학교의 경우라 하더라도 특정 종교교육이 전교생에게 일률적으로 실시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2. 교과서 내용 선정과 구성

‘삶과 종교’ 교과를 개설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과서가 확보되어야 한다. 2015 교육과정의 ‘종교학’ 교과에서는 세종교육청이 발행한 1종의 교과서만 인정 도서로 승인되었다. 당시, 개신교, 불교, 천주교에서도 인정 교과서 심사 신청을 한 바 있었지만 모두 불합격되었다. 개별 종교의 관점에서 집필되어 종교 편향성이 있다는 점이 불합격의 이유가 되었다.

그러나 ‘삶과 종교’의 경우 2024년 8월, 3종의 인정교과서가 심사 과정을 거쳐 승인되었다. 승인을 위한 심사 과정 또한 집필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집필진의 관점과 심사위원의 관점에 차이가 있고, 의도와는 달리 서술 방식이 기준이 되는 교육과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심사 위원들은 심사 과정에서 세부 내용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데, 집필진은 이를 반영해야 한다. 서술 방식, 사례, 삽화 등 모든 것에 대한 심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어떤 의미에서 교과서는 집필진과 심사위원의 공동 작업이라 할 수 있을 정도이다. 심사위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불합격 판정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3종의 인정교과서 구성에서 특징적인 점은 학습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례들을 선정하거나 삶과 관련되는 사항들이 언급되고 있다는 점이다. 각 소단원의 구성이 학습자의 삶에서 출발하여 학습 내용으로 이어지고 다시 학습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차례를 띠고 있다.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가 출판한 도서의 경우 일러두기에 소단원의 구성을 밝히고 있다. 기본적으로 삶에서 삶으로 그리고 다시 삶에서의 실천과 적용이라는 흐름을 염두에 두고 교과서가 구성되었다. 그래서 소단원의 순서가 도입, 읽(본문 내용), 더하기, 더 배움의 차례로 구성되었다. 도입은 삶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학습자가 주제 내용과 자신의 삶을 관련지을 수 있게 하려는 의도로 구성되었다. 이를 위해 해당 단원에서 배우게 될 학습 내용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을 갖게 하는 질문이나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본문의 내용 즉 읽에 해당하는 부분과 이어지게 구성되어 있다. ‘도입’과 읽에 해당하는 ‘본문 구성’ 이후에는 ‘더하기’ 활동을 통해 수업 중에 배운 내용을 학습자의 삶과 연결하여 성찰하거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활동 등을 혼자 또는 모둠으로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더 배움’에는 본문 주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깊이 있는 학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학습자별로 주제에 대한 관심이 다를 것이므로 더 배움에 제시된 내용은 학습자의 개별 활동으로 이어가게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두란노 서원에서 출판한 도서 또한 학습자의 삶에서 출발하여 지식, 교수자, 동료 학습자와의 만남을 지나서 다시 삶으로 돌아오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삶 속에서(학습자의 삶에서 출발하고, 자신의 삶과 연결, 선이해 확인) 시작하여, 생각 넓히기로 이어지는데 이는 종교적 지식과의 만남, 기본 지식 이해, 읽기 자료 등의 활동으로 구성된다. 다음 단계는 성찰과 대화의 단계로서 종교적 질문 및 성찰, 공동체 나눔, 종교적 지혜 발견과 소그룹 활동을 통한 대화와 토론 시간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활동의 제목은 ‘지혜로운 시민’으로 되어 있다. 배움 요약과 삶으로의 연결, 확장 그리고 해당 과의 종교적 지혜 요약 및 정리 시간이 주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도서 출판 선두에서 발행된 교과서는 단원을 시작하면서 핵심질문으로 시작한다. 예를 들어 1단원의 경우 “인간의 실존적 위기는 종교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을까?”, “종교성과 영성에 대한 가치 척도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종교와 종교 아닌 것을 구분한다면 어떤 개념으로 가능할까?” “우리에게 종교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중단원에는 ‘생각 더하기’

가 있는데 이는 심화학습을 돕기 위해 연계 지문, 해설, 질문 또는 관련 학습 활동을 제시하여 학습자 스스로 내용을 심화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중단원별로 ‘매듭 짓기’를 두어 핵심 내용을 개념화 하도록 하고, 대단원의 마지막에는 ‘차오르기’를 통해 대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성찰, 탐구 과정을 통해 가치 태도 함양을 돕고자 한다. 각 출판사에서 발행한 교과서의 주요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삶과 종교 교과서 내용 구성
<Table 3> Content Structure of the Human Life in Religion Textbook

대단원	도서 출판 선두*	두란노 서원**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내용/ 중단원(소단원)		
인간과 종교	1. 삶의 문제 - 인간의 실존적 위기와 종교 - 삶의 문제와 종교 2. 종교성과 영성 - 탈종교 시대의 종교 현상 - 종교성과 영성 - 종교성과 영성의 관계 3. 종교의 정의 - 종교의 어원적 정의 - 종교의 실제적 정의 - 종교의 기능적 정의 4. 종교의 역할 - 종교의 심리적 역할 - 종교의 사회적 역할	1. 종교를 배우는 이유 - 종교와 과학 - 종교를 탐구하는 이유 - 다양한 종교를 탐구하는 이유 - 근원적인 문제들 2. 종교의 역할 - 종교성과 영성 - 종교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 종교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 종교의 사회봉사 기능 - 종교가 우리 민족에 끼친 영향들 3. 종교와 세계관 - 세계관 - 종교와 세계관 - 종교적 우주관 - 종교적 인간관 - 종교적 역사관 4. 종교와 인간관계 - 청소년기의 핵심 감정 - 분노와 불안에 대한 종교의 조언 - 인간은 관계적 존재 - 종교와 인간관계	1. 인간의 삶과 존재의 의미-나는 누구인가? -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2. 종교란 무엇인가? - 종교의 의미 - 종교와 영성 - 종교와 초월적 진리 3. 삶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종교적 접근 - 삶의 문제와 종교 - 고통과 죽음 문제에 대한 종교적 접근 - 종교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
여러 종교에 대한 이해	1. 여러 종교의 기원과 역사 - 유교의 기원과 역사 - 불교의 기원과 역사 - 그리스도교의 기원과 역사 - 이슬람교의 기원과 역사 2. 종교의 구성 - 경전과 교리 - 종교의례	1. 개신교 - 다양한 종교를 배우는 이유 - 개신교란 - 개신교의 성스러운 책 - 개신교의 가르침 - 개신교의 공동체 - 개신교의 예식 2. 불교 - 불교란 - 불교의 성스러운 책	1. 종교의 기원과 역사 - 그리스도교 - 이슬람교 - 유교 - 불교 - 도교 - 힌두교 2. 종교의 경전과 교리

	- 종교 공동체 3. 여러 종교의 세계관 - 인간에 대한 이해 - 역사에 대한 이해 - 구원에 대한 이해 4. 여러 종교의 윤리적 실천 - 유교의 윤리적 실천 - 불교의 윤리적 실천 - 그리스도교의 윤리적 실천 - 이슬람교의 윤리적 실천	- 불교의 가르침 - 불교의 예식 - 불교의 세계관 3. 천주교 - 천주교란 - 천주교의 성스러운 책 - 천주교의 가르침 - 천주교의 공동체 - 천주교의 예식 4. 유교와 도교 - 유교란 - 유교의 성스러운 책 - 유교의 공동체 - 유교의 예식 - 도교란 - 도교의 성스러운 책 - 도교의 공동체 - 도교의 예식 5. 이슬람교 - 이슬람교란 - 이슬람교의 성스러운 책 - 이슬람교의 가르침 - 이슬람교의 공동체 - 이슬람교의 예식 6. 힌두교 - 힌두교란 - 힌두교의 성스러운 책 - 힌두교의 가르침 - 힌두교의 예식 - 힌두교의 공동체 - 힌두교의 세계관	- 종교의 경전 - 종교의 교리 3. 종교의 의례와 공동체 - 종교의 의례 - 종교의 공동체 4. 종교의 세계관과 윤리적 실천 - 종교의 세계관 - 종교의 윤리적 실천 5. 한국 종교 이해 - 한국 종교의 역사적 전개과정 - 현대의 한국 종교 상황
종교 문화 유산	1. 일상에서 발견하는 종교 - 생활 속의 종교문화 - 일상에서 만나는 종교성 - 종교와 통과의례 2. 미술문화로 살펴보는 종교 - 종교와 미술의 관계 - 불교 미술의 유산 - 그리스도교의 미술 유산 - 그 외 종교 미술의 유산 3. 건축문화로 살펴보는 종교 - 건축문화와 종교 - 동양 문화권의 건축과 종교 - 서양 문화권의 건축과 종교 4. 음악으로 살펴보는 종교 - 종교의 소리 - 이슬람교와 수피즘의 음악 - 유교와 불교 - 힌두교의 음악	1. 개신교의 문화유산 - 종교 문화유산을 배우는 이유 - 개신교의 통과례 - 개신교의 문화유산들 2. 불교의 문화유산 - 불교의 통과례 - 불교의 문화유산들 3. 천주교의 문화유산 - 천주교의 통과례 - 천주교의 문화유산 4. 유교와 도교의 문화유산 - 유교의 통과례 - 유교의 문화유산들 - 도교의 통과례 - 도교의 문화유산들 5. 힌두교의 문화유산 - 힌두교의 통과례 - 힌두교의 문화유산들	1. 종교와 생활 문화 - 종교와 의식주 - 종교와 언어생활 2. 종교와 통과의례 - 통과의례의 종교적 의미 - 관혼 상제 안의 종교문화 3. 종교와 예술 - 종교와 음악 - 종교와 미술 - 종교와 건축 - 종교와 문학

	- 크리스티교의 음악	6. 이슬람교의 문화유산 - 이슬람교의 통과례 - 이슬람교의 문화유산들	
변화 하는 사회와 종교	1. 종교들의 덕목과 공동선 - 종교들의 덕목 - 평화를 향한 공동선 2. 정치와 종교 - 종교와 정치의 분리 - 종교의 사회적 책임 - 소수자들과 함께 하는 종교 3. 인권과 종교 - 인권의 역사 - 어린이의 인권 - 인권 감수성과 종교차별 4. 환경과 종교 - 위협받는 지구의 건강 - 기후전쟁 - 기후 난민 - 하나 뿐인 지구와 함께 살기	1. 다종교 다문화 사회에서의 종교 - 현대 사회의 종교 - 다종교 사회 - 한국의 종교 갈등의 역사 - 공존과 화합의 시대 - 우리나라 종교의 과제 2. 종교의 사회참여 - 마틴 루터 킹과 흑인 민권 운동 - 만해 한용운과 독립운동 3. 종교와 나눔 - 빈부격차 - 소득의 양극화는 그들만의 잘못 이 아니다. - 이러한 현상에 대해 종교는 무 었을 이야기 할 수 있는가? - 의료, 교육, 복지에 기여한 종교 4. 종교와 생명존중 - 보육원의 유래 - 입양에 대한 힌두교의 입장 - 입양에 대한 천주교의 입장 - 입양, 또 다른 가족이 되는 법 5. 종교와 생태계 - 생태계: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 - 생태계의 가치 - 생태계와 종교 - 불편을 감수하는 실천	1. 종교적 지혜 - 종교에서 배우는 지혜(인간 존 엄성, 생명존중, 포용과 상호존 중, 정의와 평화) - 종교인의 사회참여(그리스도교 장기려 박사 / 천도교 손병희 / 그리스도교 김용기 / 천주교 김수환 추기경 / 불교 백초월 스님 / 유교 김창숙) 2. 현대 사회 문제에 대한 종교의 역할과 책임 - 종교의 공적 역할 - 종교인의 사회적 책임

출처: * Park et al. (2025). Religion in Human Life : High School Text Book. Seoul: Seondu. ** Park et al. (2025). Religion in Human Life : High School Text Book. Seoul: Duranno.

*** Cho et al. (2025). Religion in Human Life: High School Text Book. Seoul: Catholic Bishops' Conference of Korea.

각 교과서는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의 틀을 기준으로 내용을 선정하고 있지만 내용 선정에는 차이가 있다. 1단원과 2단원의 내용에서는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1단원은 종교의 개념과 의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학습자의 삶과 관련되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 그러나 3단원과 4단원의 내용 구성에서 차이를 보인다.

3. 교육과정 실행에서 교사와 학생의 역할

‘삶과 종교’ 교육과정에 대해 교육과정의 내용이 ‘종교인 만들기’를 지향하고 있으며(Ko, 2024: 11), 종교와 유사 종교를 이분법적으로 접근한다는 지적이 있다(Ko, 2024: 24). 반면 ‘삶과 종교’ 교육과정이 종교 교과와 교과적 고유성을 어느 정도는 드러내고 있지만 종교 교과와 교과적 고유성이라 할 수 있는 종교적 존재로서 학습자 이해가 부족하고 탐구 대상과 영역에서 신적 초인간적 존재에 대한 담론이 약하다는 점등을 들어 ‘교과적 고유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다(Yoo, 2024: 236). 교육과정에 대한 이런 평가가 실제 교육과정 운영에서 어떻게 드러날지 아직은 알 수 없다. 계획된 교육과정은 어느 수준에서 만들어지든지 향후 진행될 교육 활동에서 기대하는 바를 담아낸 것으로서 실행을 위한 일종의 지침이다(Soo, 2017: 46). 그러나 계획된 교육과정이 실행과 일치하기는 어렵다. 교육과정 실행은 교사에 따라 달라질 뿐 아니라 학습자의 상황도 교육과정 실행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교양 교과에 해당하는 과목들은 pass / fail로 평가되고 입학시험에 포함되는 교과목이 아니어서 교육과정 운영에서 교사의 주도성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 그렇다고 교사가 교육과정을 무시하고 임의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것이라는 것은 아니다. 교육과정 운영에서 교사의 주도성은 교사의 전문성을 전제로 논의한다. 또한 교육과정 실행에서 교사가 자신의 역할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 계획된 교육과정에 대한 접근도 달라진다. 교사 스스로 자신의 역할을 계획된 교육과정을 전달하는 역할로 볼 것인지, 적극적인 재구성자로 볼 것인지, 교육과정 창안자 혹은 개발자로 볼 것인지에 따라 ‘삶과 종교’ 교육과정 실행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한편 계획된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에서 간과하는 요인이 있는데 그것은 학생들이다. 학생들은 교사가 가르치는 것을 그대로 배우지 않는다. 교사가 가르치는 것과 학생이 배우는 것은 다르다. 그동안 종교교육과정에 대한 연구와 논의에서 실제 수업에서의 실행과 학생들의 경험에 대한 측면이 간과되어왔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계획된 종교교육과정의 실행된 차원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교과서는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도구로 기능한다. 현재 인정된 ‘삶과 종교’ 교과서들은 다양한 활동과 질문을 포함하고 있다. 두란노 출판사의 교과서에는 중단원마다 ‘성찰과 대화’가 있다. 예를 들어 1단원의 종교와 인간관계의 성찰과 대화에서는 “최근 내가 경험한 인간관계의 어려움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상황에 도움이 되는 종교적 질문은 무엇인가?”라고 묻고 있다. 열린 형태의 이 질문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경험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질문을 구성함으로써 학습 내용이었던 인간 관계에 대한 종교적 접근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또 다른 교과서의 1단원에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생에서 중요한 질문들은 무엇인가?”, “여러분은 종교가 인생의 중요한 질문들(“나는 왜 태어났을까?”)에 어떻게 답한다고 생각하는가? 등의 질문으로 학생들이 학습 내용을 자신의 것

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한국의 교육 상황에서 수업에서 이런 질문을 하고 학생들이 그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갖고 친구들과 대화할 수 있는 수업이 얼마나 될까?

IV. 결론

“종교는 오랫동안 죽음을 비롯해 개인이 살면서 마주하는 실존적 위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왔다. 이 때문에 종교는 동서양을 불문하고 ‘지혜 전통’으로 불리기도 한다”(Seong, 2023: 18). 또한 “교양교육이 인간과 사회와 자연과 예술을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세계관과 가치관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는 교육이라면 종교학 교육은 교양교육에 포함되기에 충분하다”는 인식도 있다(Min, 2024: 189). 그러나 특정 종교의 ‘신앙교육’은 다른 종교를 가진 학습자나 종교가 없는 학습자에게는 의미가 없다는 점에서 ‘보편적 포괄성’을 갖추기 어렵다고 보고 교양교육에 포함하기 어렵다고 한다(Min, 2024: 189).

‘삶과 종교’ 교과는 어떠한가? 그동안 종교 교과를 운영해 오던 종립학교 현장에서는 이 교과가 ‘종교학’ 교육이 아니기를 바란다. 교육 현장에서 운영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고 한다. 그런데 그동안 종립학교에서 주로 개설되고 교사도 특정 종교의 성직자들이다 보니 한편에서는 종교 교과가 ‘보편적 포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한다.

앞서 학교 교육과정에서 교양교육의 모호한 위치를 보았다. 그런데 종교교육은 교양교육 가운데에서도 불확실한 위치를 갖는다. 교양 과목인데 교양교육이 될 수 없다는 비판들이 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랜 기간 지혜를 탐구해 온 종교를 학교에서 배울 기회를 갖는 학생들은 매우 소수이다. 공식적인 교육과정에는 있으나 여전히 영교육과정에 남겨두려 한다. 종교교육에 대한 염려와 불신 때문이다.

이 글을 시작하게 한 문제의식은 한 가지였다. 학생들이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종교교육을 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위함이었다. 신앙인이든 아니든 청소년들이 자신을 알고, 인간에 대해 이해하고, 고통과 죽음에 대해 생각해 봄으로써 보다 의미있는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성찰하고 생각을 나눌 기회를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할 것 같았다. 교육 목표에 제시된 “좋은 교육”들이 실행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물론 이러한 질문의 답을 찾고 생각을 나눌 교육적 공간이 종교 교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주요 교과”라고 불리는 교과들은 의미 있는 교육을 실행할 여유를 갖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러나 종교교육은 종교에 관해 배우고 또한 종교적인 가르침을 실천하는 교사를 통해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종교 지혜를 발견하는 데 적합한 공간이다. 학교에서 가치를 가르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 자기 자신의 이익보다 친구와 이웃을 더 먼저 생각하라고 가르치는 것도 참으로 어려운 일이 되었다. 종교교육에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해결할 수는 없지만 종교 교과 안에

서 만나게 되는 각 종교의 가르침에는 도덕 교육과 사회 교육에서 다루지 못하는 것이 있다. 종교교육 안에서 학생들은 교양교육을 통해 길러내고자 하는 삶의 태도를 배울 수 있다. 인간다운 삶이란 무엇인가? 의미있는 삶이란 무엇인가? 이웃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여러 종교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교과가 아닌가?

종교에 대한 이해가 무척 낮다. 신앙 생활을 하는 이들도 자신의 종교에 대해 깊이 있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이웃 종교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이 알고 있겠는가? 박범석 (Park, 2023: 41)이 PEW 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제시했듯이 “한국은 종교 신앙이 정치 신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거나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정치 갈등에 민감하다는 추정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는 곧 우리 사회가 종교 간 갈등이 야기 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사회 전반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말이 된다. 그러면서 종교문해력에 대한 탐구가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종교 문해 역량을 지식, 공감, 실천의 세 가지 영역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식 역량’에는 유형과 무형, 역사와 교리, ‘공감 역량’에는 수용과 인정, 체험과 표현을 둔다. 그리고 ‘실천 역량’에는 배려, 존중, 소통과 비판을 두고 있다. 현재의 교육과정과 승인된 3종의 교과서에는 이를 내용으로 한다. 교육과정과 교과서에는 종교 문해력을 기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이 담겨있다.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다.

교과서 활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우선 현재 승인된 각 교과서의 집필진은 특정 종단을 배경으로 한다. 따라서 서로가 교과서 내용을 살펴보면 서로 각 종교에 대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러한 과정은 교과서 활용을 더 풍요롭게 해 줄 것이다. 그리고 해당 종교인이자라면 느낄 수 있는 의미의 차이가 교과서에는 반영되지 못했을 수도 있다. 특히 종교 교과가 종립학교 뿐 아니라 더 많은 학교에서 개설되기를 희망하는 입장에서는 종교를 담당하게 될 타 교과 교사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의 문제도 과제로 남겨진다.

References

- 2024 Teachers by Teaching Subjects. Retrieved 2025. 4. 23., from
https://kess.kedi.re.kr/publ/publFile/pdfjs?survSeq=2024&menuSeq=3894&publSeq=2&menuCd=105479&itemCode=02&menuId=2_6_23&language=en
- Establishment of Elective Courses in General Subject. Retrieved 2025. 4. 23., from
https://kess.kedi.re.kr/publ/publFile/pdfjs?survSeq=2012&menuSeq=3894&publSeq=2&menuCd=34764&itemCode=02&menuId=1_6_28&language=en
- Kim, K. Y. (2023). A Study on ‘Religion in Human Life’ According to the 2022 Revised

- Curriculum.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73, 19-40.
- Ko, B. C. (2023). ‘Inventing’ Religion and Pseudo-religion in the 2022 National Curriculum on Religions. *Journal of the Daesoon Academy of Sciences*, 46, 1-32.
- Lim, S. M., Yoon, H. J., & Bang, D. (2020). Research Trend Analysis in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Using Semantic Network Analysis.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14(1), 11-32.
- Min, K. S. (2024). Realities and Challenges of Religion Courses in Higher Education: Focusing on the Case of Yonsei University.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18(3), 187-197.
- Na, K. S., & Youn, J. K. (2019). Task and Vision of Religious Education as a College Liberal Study with Regard to the Increase of Religious Illiteracy rate.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60, 119-142.
- Paek, S. S. (2024). The Historical Limitations and Qualitative Transformation of General Education Policy.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18(6), 53-66.
- Park, B. S. (2023). Religious Literacy in Multi-religious Societies: Focusing on Competency-Based Religious Literacy Diagnosis. *Religion and Culture*, 44, 41-67.
- Seong, H. Y. (2024). The Meaning and Role of ‘Religious Literacy’: Focusing on Social Application Strategies. Studies in Religion. *The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the History of Religions*, 84(2), 9-36.
- Son, D. H. (2009). New Status of General Education and Projects for its Enrichment.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3(2), 5-22.
- Son, S. N. (2011). *The Archetype and Transformation of Humanities Liberal Arts Education*. Paju: Kyoyook-Kwahak-Sa.
- Son, S. N. (2022). The Strengthening of Liberal Arts Education in High Schools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16(6), 69-81.
- Song, S. S. (2022). A Brief History of Liberal Education in Ancient and Medieval Europe—Focusing on the Formation and Evolution of Liberal Arts.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16(3), 45-58.
- Yeo, S. W. (2024). Problems and Vitalizing of High School Liberal Arts Education. *Journal of the Society of Subject and Textbook*, 4(1), 1-21.
- Yoo, S. H. (2024). Exploring ‘the Uniqueness of Subject’ of Religious Education: A Critical Review of the 2022 ‘Life and Religion’ Curriculum. *Korea Presbyterian Journal of Theology*, 56(1), 217-242.

- 교육부 (2022).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 (Translated in English) Ministry of Education. (2022). *General Guidelines Commentary for the 2022 Revised National Curriculum*.
- 김영은, 노은희, 김진숙, 이광상, 이영미, 양영자 (2021).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교과목 체계와 이수 경로 탐색』. 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21-2. (Translated in English) Kim, Y. E., Noh, E. H., Kim, J. S., Lee, K. S., Lee, Y. M., & Yang, Y. J. (2021). *Exploring the Mathematics Structure and Course Pathways in Accordance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Research Report RRC 2021-2.
- 박상진, 이종철, 강지혜, 김성태, 서윤경, 우수호, 이석영, 최병훈, 김진아, 서창립, 원지은, 이수경 (2025). 고등학교 『삶과 종교』, 서울: 두란노. (Translated in English) Park, S. J., Lee, J. C., Kang, J. H., Kim, S. T., Seo, Y. K., Woo, S. H., Lee, S. Y., Choi, B. H., Kim, J. A., Seo, C. R., Won, J. E., & Lee, S. K. (2025). *Religion in Human Life: High School Text Book*. Seoul: Duranno.
- 박성중, 박종수, 서세훈, 이은경 (2025). 고등학교 『삶과 종교』, 서울: 선두. (Translated in English) Park, S. J., Park, J. S., Seo, S. H., & Lee, E. K. (2025). *Religion in Human Life: High School Text Book*. Seoul: Seondu.
- 소경희 (2017). 『교육과정의 이해』. 서울: 교육과학사. (Translated in English) So, K. H. (2017). *Understanding the Curriculum*. Seoul: Kyoyook-Kwahak-Sa.
- 정영근, 김영은, 이수정, 허예지, 이지애, 안광복, 권희정, 여영서, 윤신혁, 박진, 김빛나, 고효상, 박종배, 노병태, 김경이, 우수호, 김덕진, 장경호, 박철용, 김혜정, 박정하, 윤상철 (2022b). 『2022 개정 교양 교과 교육과정 시안(최종안) 개발 연구』. 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C 2022-17. (Translated in English) Jung, Y. G., Kim, Y. E., Lee, S. J., Heo, Y. J., Lee, J. A., Ahn, K. B., Kwon, H. J., Yeo, Y. S., Yoon, S. H., Park, J., Kim, B. N., Ko, H. S., Park, J. B., Noh, B. T., Kim, K. Y., Woo, S. H., Kim, D. J., Jang, K. H., Park, C. Y., Kim, H. J., Park, J. H., & Yoon, S. C. (2022b).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Final Draft of the 2022 Revised Liberal Arts Curriculum*.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Research Report CRC 2022-17.
- 정영근, 김영은, 이수정, 허예지, 이지애, 안광복, 여영서, 윤신혁, 김빛나, 고효상, 박종배, 노병태, 고병철, 박성중, 장경호, 박철용, 박정하, 윤상철, 정윤경, 정지은, 박나실, 박정근, 이정림, 목정호, 서재형, 이승희, 최은희, 이규은, 정혜선, 김금희, 김미숙, 문명아, 권미경, 유인숙 (2022a). 『2022 개정 교양교과, 진로와 직업과, 보건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 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C 2022-4. (Translated in English) Jung, Y. G., Kim, Y. E., Lee, S. J., Heo, Y. J., Lee, J. A., Ahn, K. B., Yeo, Y. S., Yoon, S. H., Kim, B.

- N., Ko, H. S., Park, J. B., Noh, B. T., Ko, B. C., Park, S. J., Jang, K. H., Park, C. Y., Park, J. H., Yoon, S. C., Jeong, Y. K., Jeong, J. E., Park, N. S., Park, J. G., Lee, J. R., Mok, J. H., Seo, J. H., Lee, S. H., Choi, E. H., Lee, G. E., Jeong, H. S., Kim, G. H., Kim, M. S., Moon, M. A., Kwon, M. K., & Yoo, I. S. (2022a).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Draft Curricula for the 2022 Revised Liberal Arts, Career and Occupation, and Health Subjects*.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Research Report CRC 2022-4.
- 제5차 교육과정. 문교부 고시 제 88-7호(1988.3.1.) 별책 1. 고등학교 교육과정. (Translated in English). *The 5th National Curriculum. Ministry of Education Notification No. 88-7* (March 1, 1988), Supplement 1: High School Curriculum.
- 조영관, 김경이, 김을옥, 김홍주, 오지섭 (2025). 고등학교 『삶과 종교』,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Translated in English). Cho, Y. G., Kim, K. Y., Kim, Y. O., Kim, H. J., & Oh, J. S (2025). *Religion in Human Life: High School Text Book*. Seoul: Catholic Bishops' Conference of Korea.
- 한혜정, 곽덕주 (2013). 『미래 사회 대비 국가 수준 교육과정 방향 탐색 - 교양』.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C 2013-28. (Translated in English). Han, H. J., & Kwak, D. J. (2013). *Exploring the Direction of the National-Level Curriculum for the Future Society: Focus on Liberal Education*.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Research Report CRC 2013-28.
- 한혜정, 김영은, 이주연, 곽상훈, 김광하, 김기탁, 김용진, 박지만, 진동섭, 최동선, 한충희, 황유진 (2015).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서(중·고등학교) 개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 보고 CRC 2015-28. (Translated in English). Han, H. J., Kim, Y. E., Lee, J. Y., Kwak, S. H., Kim, K. H., Kim, K. T., Kim, Y. J., Park, J. M., Jin, D. S., Choi, D. S., Han, C. H., & Hwang, Y. J. (2015).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2015 Revised Curriculum General Guidelines (Middle and High School)*.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Research Report CRC 2015-28.